손기정 탄생 100주년
1912 ~ 2012

2012 SonKeeChung Peace Marathon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

주 제 "손기정과 함께 대한민국이 달립니다"

주 최 손기정기념재단 www.marathon1936.com / YTN

주 관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 사무국

문 의 02-723-1666 / 02-3210-1667

특별후원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후 원 YTN DMB / YTN FM 94.5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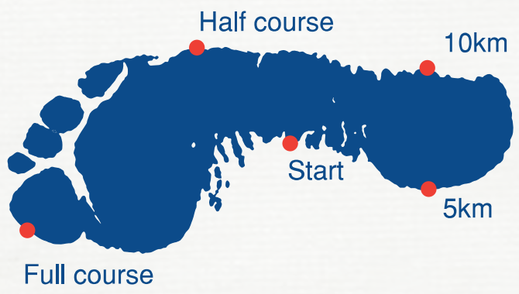
공식기념품 제작 NEPA

*공식기념품 아웃도어 기능성 티셔츠

- 일시 : 2012.11.18(일) 09:00
- 장소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종목 : 풀코스,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재정후원 :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www.sonkeechungrun.com

YTN

2012 OCTOBER **Volume.100**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TEL. 02-398-8000 | 제보 02-398-8585 | 휴대폰 YTN 뉴스 청취 200-2424

HOT ISSUE
영어뉴스 출범 / 특파원 선정 / 사보 100호

ZOOM IN
글로벌 시대의 주역들, 꿈을 펼쳐라! 영어토론대회 / 모의 UN 총회

취재/제작기

콘텐츠 확대
YTN웨더 / YTNDMB / YTN사이언스 / YTN라디오 / 디지털YTN

포토뉴스/게시판

가자! **상암동 새 시대**로...

'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전체에서 **시청률 1위**

대한민국 뉴스채널 YTN이 내년 **상암동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CI**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암동 새 시대, 제 2 창사의 상징으로 탄생할 새 CI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뉴스채널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YTN의 위상과 각오**를 보여주는 표상이 될 것입니다.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상징인 로고나 심볼(Symbol)마크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나 전략을 통합하는 작업.

Contents

|02| **커버스토리.** 도약... YTN
20년 만의 CI 제정
YTN CI를 말한다
르포 – 신사옥 현장을 가다

|08| **특별기고.** IP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유통 플랫폼의 확대가 '강남 스타일' 만들다

|10| **핫 이슈 1.** 영어뉴스 출범
'새로운 모험'에 도전합니다

|12| **핫 이슈 2.** 특파원 선정
취재현장, 이제 세계로 넓혀라

|14| **핫 이슈 3.** 사보 100호
'사보 1000호'를 향해

|16| **취재 · 제작기**
런던 올림픽 취재기 – '거울도시' 런던의 여름
순회특파원 시리아 취재기 – 첫 번째 Mission 완료
프로그램 제작기 – 한중 수교 20주년 〈미래로 가는 동행〉

|22| **ZOOM IN.** 글로벌 시대의 주역들, 꿈을 펼쳐라!
영어토론대회 – 넓고 깊은 사고, 새로운 형식의 토론과 만나다
모의 UN 총회 – 잠재력을 일깨워 준 대회

|26| **콘텐츠 확대**
YTN웨더 – 폭염과 폭우, 태풍과 함께 한다
YTNDMB – DMB, 가야할 길은 멀지만
YTN사이언스 – 대한민국 창의과학축전: 과학 콘텐츠의 길잡이
YTN라디오 –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경제 어렵지 않아요
디지털YTN – 마케팅팀: 디지털 광고도 '스마트'

|35| **포토뉴스 / 게시판**

design by **21세기광고연구소**

독자적인 콘셉트와 Visual Style이 있는 CI

'빠른 뉴스, 알찬 정보'의 속성을 넘어선 **그 속의 가치**와
+α를 찾아 **시청자들의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YTN의 새로운 CI 작업은 YTN이 20년 가까이 구축해 온 '한국의 뉴스채널'로서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면서 차별적 우위와 시대적 감성을 부여하여 글로벌 뉴스채널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리데이비슨이 최고급 오토바이가 아닌 '자유'를 말하고, 스타벅스가 맛있고 질 좋은 커피가 아닌 '문화'를 강조하는 것처럼, YTN도 '빠른 뉴스, 알찬 정보' 등의 속성을 넘어서 그 속의 가치와 우리만의 +α를 찾고 그것을 시청자들의 경험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YTN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YTN을 방문하는 날은 태풍 '볼라벤'이 오던 날 이였습니다. 역사상 4번째로 강력한 태풍이라는 예보에 걱정반 호기심 반, PC로 앱으로 YTN뉴스를 수시로 확인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YTN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YTN은 국내 최초로 24시간 뉴스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 케이블 방송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뉴스전문채널로 성장해 왔습니다. 내년 상암동 사옥 이전을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CI 개발 프로젝트를 우리 디자인파크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의 CI를 개발한다는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송시장은 종합편성채널의 등장과 플랫폼 컨버전스 등으로 다채널, 다매체화 됨에 따라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콘텐츠의 품질이 채널 충성도 형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채널의 이미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호의도 및 채널 충성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송시장에도 브랜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방송채널도 독자적인 콘셉트와 Visual Style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CI 작업은 8월 중순에 시작되어 경영진 및 CI개발 TFT와의 인터뷰를 통해 CI 개발에 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 외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CI 개발 방향성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아이디어를 발상해 나갈 것입니다. YTN 내부의 아이디어들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새롭게 개발될 CI가 YTN이 미디어 시장의 파워 브랜드, 명품 브랜드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고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원 디자인파크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디자인파크는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개발을 시작으로 LG그룹, 교보생명, LIG, NH농협, 샘표, 청정원, BC카드, T머니, 사법부, 한국은행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과 기관의 CI, BI 작업을 진행한 CI 전문회사이다.

상암동 YTN미디어센터는 지난해 4월 25일 착공식을 했고, 현재 공정률 26.19%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위치는 타 방송국의 사옥들이 서로 경쟁하며 공사를 하는 DMC 단지의 중앙에 있다. YTN미디어센터 공사는 Top-Down 신공법을 적용하여 지하 6층 터파기공사가 6월 18일 완료됐고, 7월 10일에는 콘크리트 8500m^3(레미콘 차량 1400여 대 분량) 타설이 완료됐다. 지하층은 지하 4층 코아 및 각층 램프웨이(Rampway)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층은 10층 코아 골조공사와 현재 주 공정인 철골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개발단계, 생산단계, 유통단계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비용이 1:10:100이 소요된다는 Fedex의 법칙을 원용해, 신사옥건립의 모든 공정을 초기 단계에서 엄정하게 검증하여 '제때 제대로 된 YTN미디어센터 건립'을 모토로 단원 모두가 단결하여 뛰고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철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외벽 및 각층 마감공사를 병행하여 전체적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감리사인 희림건축, YTN신사옥 추진단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YTN 상암동 시대를 준비하며, 화이팅!!!!!

이철세 신사옥건립추진단

06
07

왼쪽부터
최범종 현장소장, 이길우 부장, 이성희 국장, 이병균 단장, 이철세 차장, 이은미, 지승철 과장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통 플랫폼의 확대로 이뤘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을까? 내 의견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인간들은 '소통'과 '복제'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문자-인쇄술-방송-인터넷-모바일로 이어지는 기술의 발전 역시 인간의 소통과 복제 본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컴퓨터가 보급될 당시에만 해도 컴퓨터는 단순히 기억을 대신하거나 계산을 빨리해주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90년대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공유, 90대 후반 웹으로 포털을 통한 정보 공유로 진화했고, web 2.0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 통신, 영상,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결국 IP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생각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현재의 통신환경은 어떠한가. 아직 이동통신, 유선통신, 인터넷, 방송망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집이 대부분이지만 ALL IP의 시대에는 광대역 통합망 하나면 각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모바일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 8월 이미 스마트폰 보급이 3천만 대를 넘어섰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 앉을 필요도, TV를 보기 위해 소파에 앉을 필요도 없다. 모바일 트래픽은 최근 1년 새 100배 이상 급증했고, 평균 TV 시청시간은 20분 감소했다. 지하철에서 모두 모바일 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익숙한 풍경이 불과 2~3년 이내에 이루어진 급작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스마트폰의 확산은 소셜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현재 페이스북의 가입자는 10억명을 넘어섰다. SNS을 뉴미디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은 방송되지 않았지만 SNS로 꽃을 피웠고, 스페인의 인터넷 관련 운동을 하는 해적당이 등장해 SNS를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SNS에 관한 최근 빅 이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로빈 윌리암스 등 해외 스타들이 본인들의 트위터에서 '강남스타일'을 언급했고, 심지어 톰크루즈는 싸이에게 먼저 팔로잉을 신청하기도 했다.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탄 싸이는 급기야 유명 토크쇼인 NBC '제이레노의 투나잇쇼'에서 정치 패러디에까지 그의 춤과 노래가 이용되었으며, 2012 MTV 뮤직비디오어워드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싸이의 소속사 대표 양현석은 일찍부터 인터넷 마케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하다. 제작비에 공들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까지 지구촌 곳곳에 퍼져 나갔다. 양대표는 "인터넷 음원 차트에서 1위 하는 것이 방송사 가요프로에서 연속 우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트이지만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지금의 싸이를 있게 한 것이 아닐까. 교육방송 'EBS'가 요즘 변하고 있다. EBS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콘텐트의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EBS는 DAUM의 메인 페이지 중앙 뉴스 콘텐트 섹션에 'EBS지식' 카테고리를 추가했고, 유튜브에 공식 채널을 개설했다. 최근 5월에는 EBS미디어라는 콘텐트 활용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YTN의 명품 콘텐트들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통 플랫폼의 확대. 이 화두를 조심스럽게 던져본다.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새로운 모험’에 도전합니다

영어뉴스 방송은 YTN 역사에서 새 장을 여는 것... 이 새로운 모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YTN은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놀라운 방송이다. 이런 채널에서 일하면서 나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YTN과 함께한 시간이 짧지만, 그동안 새로운 업무를 많이 배웠으며 자랑스러운 동료도 많이 만나게 됐다. 영어뉴스가 YTN 방송에서 꼭 필요한 부문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막부터 시작한 영어방송이 범위를 넓히기를 바라기도 한다.

나는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 출신으로 그곳 지역신문에서 기자를 한 경험이 있다. 올해 초 로이터 통신 서울지국으로 옮겨와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 한국인 어머니가 부산 출신인데다 영국인 아버지는 울산 현대 조선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방문했었다. 오빠와 나는 서울에 3년 이상 머물면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한국이 무척 편안하게 느껴지며 새롭게 만난 YTN 가족들로부터 정말로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다.

클레어 헤넌 영어뉴스팀 에디터

“전 세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YTN 영어뉴스는 ‘여럿 가운데 하나’가 되기보다는 YTN의 기준과 가치관을 지닌 특색 있는 저널리즘을 구현하고자 한다.

YTN에 한 영국 여성이 등장했다. 저 미인이 누구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관심을 받고 있는 그는 잠시 스쳐 가는 출연자가 아니다. YTN 영어뉴스 앵커 역할을 맡은 클레어 헤넌씨다. 글로벌 뉴스그룹을 지향하는 YTN의 비전에 발맞춰 최근에 동참한 해외 저널리스트다. 그가 일하는 곳은 지난 7월 11일에 신설된 영어뉴스팀. 이 부서에는 UPI, REUTERS 등 국내 주재 외신사에서 30년 가까이 영문기사를 써온 베테랑, 심성원 에디터도 합류했다. 이 팀은 개국 초기에 잠시 진행됐던 영어뉴스의 부활이며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의 목소리를 내보내는 적극적인 행보다. 영어뉴스는 화면 하단의 흐름 자막(crawl)부터 시작한 데 이어 이제는 앵커가 직접 출연해 영어뉴스도 전하고 있다. 영어방송은 우선 YTN WORLD를 통해 나가고 있고 본방에 기여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 영어뉴스는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재외동포, 그리고 한국 사정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영어기사는 기본적으로 YTN의 편집방침에 따르고 있지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제적인 시각을 반영해 작성된다. 영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편성은 지양한다. 한국의 대표뉴스채널이란 확고한 스테이션 이미지와 국제 감각이 창의적으로 조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언론사들도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영어뉴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YTN 영어뉴스는 ‘여럿 가운데 하나’가 되기보다는 YTN의 기준과 가치관을 지닌 특색 있는 저널리즘을 구현하고자 한다.

박성호 글로벌뉴스센터장 겸 영어뉴스팀장

왼쪽부터
심성원 에디터, 클레어 헤넌, 박성호 영어뉴스팀장

Global 취재현장, 이제 세계로 넓혀라!

서봉국 베이징 특파원

수습 딱지를 겨우 떼고 경험한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13년 가까이 각종 국제대회와 스포츠 현장을 취재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8년 쓰촨성 대지진과 같은 해 열린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매년 한두번씩 크고 작은 국제 대회를 위해 찾았던 중국은 메이저 종합대회에서도 어느새 미국과 종합순위 1, 2위를 다툴 만큼 세계 스포츠계의 거인으로 성장했고, 그같은 저력은 경제, 정치,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스포츠 분야 이외에도 중국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싶은 열망도 커져갔습니다. 올 가을 정권교체와 함께 달라질 중국의 얼굴, 그 중에서도 미국 못지 않은 '소프트파워'를 갖추기 위해 문화대국으로의 변신을 꿈꾸는 대륙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LA 특파원

YTN의 두 번째 LA 특파원으로 선발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8년 전 YTN에 입사해 사건 기자로 생활하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는 100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교민 관련 뉴스를 많이 다뤄보려 합니다. 조기 유학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점검해 보고 무너지는 한인 상권, 재외국민 투표제도에 따른 교민 간 대립 문제 등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모습을 다각도로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생방송 참여 횟수도 확대하려 합니다. TVU 등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화질로 생방송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시간대에는 큰 뉴스가 없는 날이 많은 만큼 재미있는 내용을 찾아 생방송 참여를 할 경우 시청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사보에 썼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사보를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항상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ㅜ.ㅜ

김원배 뉴욕 특파원

지난 2006년 11월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일행을 안내해 준 코디에게 만약 YTN에 뉴욕특파원이 생기면 저도 뉴욕특파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회사가 뉴욕특파원을 신설하면서 언젠가는 뉴욕특파원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6년 만에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다. 부국장이 특파원 나간다고 하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러 들린다. 하지만 부장과 취재 부국장을 거쳐 5년 만에 다시 취재 현장에 돌아가는 제 기분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큼 설레고 흥분된다. 아직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를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날 사보는 단순한 사보가 아닌 사내외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으로는 소식의 창구가 되어 소통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밖으로는 회사의 얼굴로서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YTN 사보가 드디어 100호를 맞이했다. 지난 1999년 11월 다소 수줍은(?) 8면으로 1 호가 나온 이후 어느덧 13년이 흘렀다.

처음 200여 군데 발송되던 것도 이제는 5000여 곳으로 25배로 늘었다. 이제 YTN 사보는 이른바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기다려 보는 명품보가 되었다.

이러한 YTN 사보를 제작하고 있는 것을 100호 기념사를 쓰면서 새삼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날 사보는 단순한 사보가 아닌 사내외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으로는 소식의 창구가 되어 소통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밖으로는 회사의 얼굴로서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얼마 전 어떤 대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설명회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채용특별판 사보를 배포해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사보를 통해 자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글로벌 경쟁시대를 뚫고나갈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이는 인터넷과 각종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친근감을 무기로 한 사보가 어떻게 회사홍보의 첨병역할을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00여 년 전,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이 불현듯 떠오른다.

우리는 이제 스피노자의 이 말처럼 앞으로도 쉼 없이, 그리고 묵묵히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 영광의 'YTN 사보 1000호'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YTN은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런 우리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해 있을 것이다.

한영은 21세기광고연구소 대표

‘거울 도시’ 런던의 여름

성문규 앵커팀

자동차는 좌측통행을 하고, 핸들은 오른쪽에 있고, 수돗물은 시계방향으로 돌려야 나오는 런던. 동화 속 ‘거울 도시’에서 펼쳐진 3주일간의 올림픽 취재는 YTN의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었다.

외눈박이 마스코트 웬록과 맨드빌을 테이블 한가운데 배치하고, 그래픽팀에서 제공한 앵커백을 벽에 펼치니, 어수선했던 사무실은 그럴싸한 스튜디오로 탈바꿈했다. 돌발상황시 기동성 있게 쓰이는 TVU는 메인중계차다.

서울에서 갖고 온 앵커 유니폼까지 입고 자리에 앉으니 ‘하드웨어’는 남부럽지 않았다. 이제 중계만 잘하면 되는데...

복병이 생겼다. 런던에서 하는 말이 4~5초 뒤에 서울에 도착하는 이른바 ‘딜레이’가 문제였다. 중계 때마다 서울 앵커들과 네다섯 번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결국 모험을 택했다. 서울에 있는 앵커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먼저 답변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내가 스스로 내뱉는 말도 시차를 두고 귀에서 울리는 상황에서 앵커의 질문을 들으며 답을 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우린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도마의 신’ 체조 양학선의 고난도 연기와 이를 비교하기도 했다.

서울 앵커들의 도움도 필요했다. 작성된 원고대로 질문해야 하는, 앵커로서는 사실 재미없는 역할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진 않았다. 앵커마다 말하는 속도가 달라 실제로 질문과 답변이 겹치는 어색한 경우가 몇 번 발생했다.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 고화질의 TVU 연결로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였지만, 다음 번 비슷한 상황에서 꼭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12명 해외 파견은 이번 런던올림픽에 YTN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파원 류충섭 선배와 현지 카메라맨 김수동씨까지 합하면 YTN의 런던올림픽 취재팀은 모두 14명.

서승철, 김재형, 정병훈으로 구성된 축구취재팀은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축구대표팀의 소식을 국내에 전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축구 종주국 영국을 물리치고 준결승에 오르자 이동형, 서봉국, 이두윤팀이 지원을 나갔고, 맨체스터와 카디프에서도 TVU 중계를 이어갔다.

올림픽 기간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인 ‘팀코리아 하우스’로 달려갔던 홍석근 기자와 오디오맨 최연호. 낮에는 취재에 밤에는 TVU 중계를 책임졌던 최용호 선배. 막내지만 올림픽 기간 내내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최성훈, 류석규 기자의 활약은 이번 파견을 더욱 빛나게 했다.

런던올림픽 준비 단계부터 고생하신 류충섭 선배, 생소하기 짝이 없는 런던을 친숙하게 만들어준 김수동씨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자동차는 좌측통행을 하고, 핸들은 오른쪽에 있고, 수돗물은 시계방향으로 돌려야 나오는 런던. 동화 속 ‘거울 도시’에서 펼쳐진 3주일간의 올림픽 취재는 YTN의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었다.

빅벤’앞에서
류석규, 최성훈 촬영기자, 성문규 앵커, 최용호 촬영기자, 이두윤 영상편집

London 2012 Olym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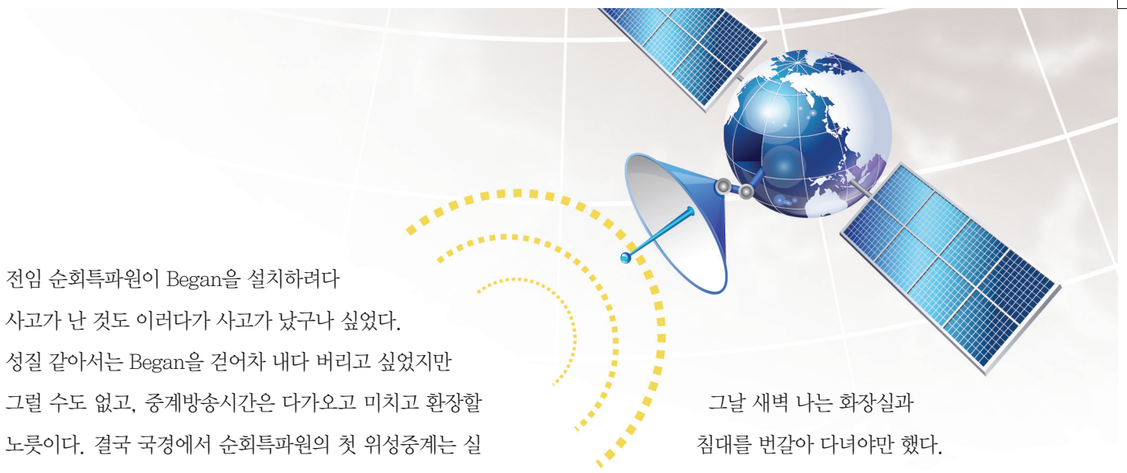
순회특파원 **이승주, 김지선**의

첫 번째 MISSION 완료

드디어, 순회특파원 첫 번째 Mission,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라는 출장명령이 떨어졌다. 취재지역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의 '안타키아'였다. 6월 29일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순회특파원 인사명령이 난지 딱 1달만의 일이다.

'안타키아'는 터키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로 이슬람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수니파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가 45%를 차지한다. 알라위파는 지금 내전 중인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속해있는 종파다. 세계 1차대전 패배 후, 프랑스자치령이 되었다가 1939년 이곳 주민의 국민투표로 터키공화국에 편입되었다. 이곳은 지중해성기후로 한낮에는 40도에 육박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른다.

터키 경찰과 군인들의 눈을 피해 난민들을 취재하는 것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더 큰 문제는 현장에서 어렵게 취재한 영상송출과 현장 위성중계였다. '안타키아'에서 40km 떨어진 '레이한느' 국경검문소에서 터키로 넘어오는 시리아 난민가족을 취재해 송출하려고 하는데, 신호가 5칸이나 깜빡이는데 위성과 접속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고 아스팔트, 자동차 지붕, 나중에는 검문소 옥상, Began을 양손으로 높이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만세를 불러 봐도 실패 또 실패...



전임 순회특파원이 Began을 설치하려다 사고가 난 것도 이러다가 사고가 났구나 싶었다. 성질 같아서는 Began을 걷어차 내다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고, 중계방송시간은 다가오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결국 국경에서 순회특파원의 첫 위성중계는 실패했다. 한국시간 22시 현장중계는 펑크가 났다. (두 사람 모두 침묵 모드, 분위기 썰렁~)

우리는 이곳에서 난민촌인 '야일라다그', '알트느즈', '아파이든' 세 곳을 취재했다. '안타키아'주민은 알레포나 시리아 북부지역에 친인척을 두고 있어 난민들에게 무척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난민들의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이슬람 종파갈등까지 (알라위파는 '아사드' 정권편을, 수니파는 반군과 난민을 옹호) 번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취재를 간 어떤 마을에서는 시리아난민에게 집을 세놓은 주인이 이웃 주민에게 폭행당했고, 코디 '오잔'이 집 앞 공원에서 '아사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가 수니파 청년들과 주먹다짐까지 오고 갈 뻔한 일도 있었다. 또 '자유 시리아군' 이 자기들 전투 동영상을 건네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자유 시리아군'이 악수를 청하자 '오잔' 친구는 자신은 Communist고 '아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과 악수할 수 없다고 말해 우리를 당황케 한 일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기간 동안 최대 시련은 설사와 장염이다. 모처럼 김기자와 밖에서 터키음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식사 전 아이란(터키 요구르트) 를 마셨는데 식사 도중 김기자가 '선배 배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랫배가 살살 아팠다.

그날 새벽 나는 화장실과 침대를 번갈아 다녀야만 했다. 김기자는 나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 다음날 힘들게 취재를 마치고 각자 방에서 방송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쾅 문을 두드리며 '선배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문을 열어보니 김기자가 배를 부여잡고 쪼그리고 앉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배가 쥐어짜듯이 너무 아프니 약을 좀 사달라고 내게 쪽지를 내밀었다. '약국'과 '배가 아프다'는 터키말을 한국발음으로 적어 놓은 메모였다.

다행히 취재기간 우리를 도와준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니 코디'오잔'을 통해 매실차와 약을 보내줘 조금 진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아파 허리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중계방송을 매일 2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선 그녀가 누구던가?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똘똘 뭉친 똑 소리 나는 '차도녀' 중계방송을 할 때면 굽었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 표정관리를 하며 또박또박 방송했다. 마지막멘트 '터키, 시리아국경 터키 안타키아에서 YTN김지선입니다.' 라는 멘트가 끝난 후 배를 움켜잡고 곧바로 침대에 쓰러진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호텔 종업원 몰래, 삶은 계란 2개와 냅킨에 소금을 가득 뿌려(소금이 적으면 짜증냄) 후배에게 전해 줬다.

이승주 차장 영상취재1부

한중수교 20년 특별기획 〈미래로 가는 동행〉

향후 20년을 잘 설계해야...

칭다오 맥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 칭다오 시는 우리나라 부산 해운대처럼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이 있었던 청나라 말기 독일의 조차지였던 까닭에 독일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 마치 유럽의 도시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칭다오 시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되는 가까운 곳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한중 수교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왔습니다. 지금 천 5백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 만난 우리 기업인들은 예전에는 제법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최저 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올리기로 해 임금 상승 압박이 커졌고, 중국도 산업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일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땅값이 오르면서 중국 지방 정부가 토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기업의 이전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횡포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중국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머잖아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할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존경받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13억 인구의 중국은 우리나라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교역하는 나라이고, 투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한 국가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축포를 쏘았는데 이 가운데 22%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할 정도니까요.

베이징은 칭다오와는 달리 취재 환경이 자유롭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김승재 특파원은 천안문이나 시내 중심지에서 함부로 촬영을 하다가는 잡혀간다고 잔뜩 겁을 줬습니다. 겉으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사복을 입은 공안이나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은 취재 내내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한중 외교 관계와 경제 관계는 베이징과 칭다오 취재 분위기만큼 달랐습니다. 두 나라 외교 관계는 현 정부 들어 많이 냉랭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탈북자 문제 등 많은 현안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중국인 교수나 전문가들은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우리는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북한 핵이나 탈북자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등 모든 현안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더 이상 수교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중공(中共)'이 아닌 것이죠. 경제력과 군사력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걸맞는 대우를 세계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향후 20년의 관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중국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10년 뒤에 제작하게 될 '한중수교 30주년
특집'에는 그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담겨지겠네요.

김용섭 기자 제작1팀

왼쪽부터 구본진 PD, 김용섭 기자, 권혁용 기자

영어토론대회 우승팀 예일대 연수

새로운 형식, 넓고 깊은 사고를 요구한 Yale의 토론 연수와 만나다

지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진다.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배움을 추구했던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내 생각의 폭,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사고방식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토론보다도 예일이라는 명문대의 학생들과 코치를 만나고 그 캠퍼스를 걸어보는 일이었다. 그렇게 college tour에 들뜬 마음으로 첫날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David Kimel 코치님을 만나 예일대를 잠시 둘러본 후 강의실을 빌려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형식과는 판이한 American Parliamentary 형식을 배웠다. American Parliamentary는 World Schools나 Asian Parliamentary와는 달리 찬성 측 팀에서 주제를 정한다는 점과 준비 시간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하여 토론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지식을 동원하여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여러 주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trill"에 관한 것이었는데 trill이란 미국 GDP의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가상 채권을 이르는 말이었다. 주제는 "trill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였는데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내용에 대해 준비 없이 반박하려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GDP가 항상 경제 상황을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 trill의 장점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채권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었다.

Kimel 코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 토론 형식과 무관하게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 중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 닿았던 것은 pre-flow였다. 원래는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필기(flow)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 스피커와 reply speech를 맡은 나로서는 항상 필기는 뒷전이었다. Pre-flow는 토론하기 전에 미리 우리의 주장,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우리의 반박을 모두 적어 봄으로써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테크닉인데 직접 해 보니 이를 통해 나의 주장을 미리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뼈대를 잡아 놓아 flow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철학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칸트, 실존주의, 공리주의 등 여러 사상, 도덕, 철학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한국에서 토론 코칭을 받을 때에 전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특히나 유익했다. 이러한 철학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야 토론에 깊이가 생긴다는 점을 가만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은 토론뿐 아니라 일반적인 에세이를 쓸 때에나 사고력을 기를 때에도 필수적인 부분이었기에 의미가 깊었다.

마지막 날에는 예일대 토론 팀의 주장과 학생 대표를 맡은 Robert Colonel과 Andrew Connery를 만났다. 둘 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4학년이었는데 이번 여름 방학은 인턴십 때문에 바쁘게 보냈다고 했다. Robert와 Andrew와의 수업에서는 연습 토론보다 우리의 질문을 위주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상대팀에 대한 반박과 우리 팀의 주장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경계선은 어디까지인지 등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깊이와 논리로 대답해 준 Robert와 Andrew가 존경스러웠고 또 고마웠다.

집에 돌아와 태풍 볼라벤을 걱정하며 글을 쓰는 지금,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 지난 일주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달리 토론에 대해 다시 두근거림을 느끼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은 지금까지 나갔던 어떤 대회보다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져다준 진짜 배움이라고 생각된다. 2년 가까이 토론을 쉬면서도 나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한 회의감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토론이 그저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기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대회를 위한 토론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토론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David Kimel 코치, Robert Colonel과 Andrew Connery, 동행해 주신 YTN 관계자와 외국어대학 교수님, 그리고 대회와 연수를 위해 애써주신 YTN, HUFS 관계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받은 이 소중한 배움을 앞으로 만날 토론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지수 청심국제고 3학년

Fighting!!

자신 속의 잠재력을 일깨워 준 대회

모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 **첫 모의 유엔 경험**은 제가 고등학교를 막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첫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그 흥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조차 이해를 못 했었죠. 되돌아보면,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미숙한 참가자**에서 나름의 **경력이 있는 모의 유엔 대사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저의 두려움과 걱정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협동할 기회가 온다는 기대감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모의 유엔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참가자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질 높은 토론과 토의**를 본 대회는 몇 안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의 유엔에 참석할 수 있는 것조차 저에겐 매우 행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대회를 조직하고 이 대회가 있을 수 있게 해준 의장단, 스태프,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는, 저 혼자의 감사가 아닌,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대사단**을 대신해서 하는 감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 관리와 조직**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참가자 개개인의 대회에 관련된 추억들과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많은 대사단들과 참가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이 모의 유엔이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토론과 화합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까요. 몇몇은 소심했고, 몇몇은 아예 존재하기를 거부할 정도로 조용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 모두가 저처럼, 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속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면, 앞으로도 모의 유엔에 관심을 두고 활동한다면 그 모두가 **숙련된 웅변가**와 **논리적인 토론자,** 그리고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태껏 모든 참가자를 위한 감사의 인사를 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 친구 정준혁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모의 유엔을 참가하도록 닦달하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golden table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상을 타기까지 과정에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좋은 친구들**이 돼 주었습니다. 너희 없이는 매우 재미없었을 꺼야. 물론 그 후에 먹이는데 아주 많은 돈이 들었지만 말이야. 마지막으로, 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최고의 아들이 되기를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할 때, 비로소 **자신의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회에 참가할 마음이 있고 참가하기 위해 고생했던 그 많은 사람 다 그 두려움을 딛고 **이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MUNCCC(모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두고두고 남을 경험일 될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MUNCCC를 내년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MUNCCC는 당신의 **모의 유엔 경험을 시작**하고 자신의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모의 유엔보다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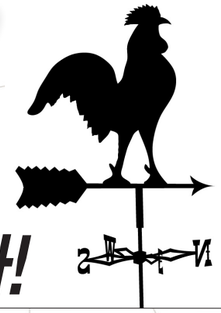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시작하세요.

이진우 용인외고

〈모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폭염, 폭우, 태풍'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신입 기상캐스터 >>>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임성은 Purdue Univ/ Mass. Communication

매일 누군가의 기분을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날씨정보를 때론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로, 여름휴가처럼 신나는 기분으로, 가을처럼 멋있고, 겨울의 흰 눈처럼 깨끗한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YTN에 훈풍을 몰고 올 유승민 캐스터입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겨울 밤 첫눈처럼 설렘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 가겠습니다.

폭염 박은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던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항상 그랬듯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중계를 나간다.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곳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일산 호수공원! 원고를 쓰고 분장을 받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해 갈 때쯤. 갑자기 팀장님께서 부르신다.

"아, 이거 열사병 지수 측정하는 건데, 이거 들고 나가면 열사병 지수, 기온, 습도 알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나눠서 방송에 활용해서 말하면 된다잉~" 온도계를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알려 주신다. '열사병 지수가 나오면 뭐 얼마나 나오겠어?' 피식.. ^——^;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 최고 단계인 매우 위험 수준! 지금까지 나갔던 폭염 중계와 비교가 안 된다. 바깥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35도를 웃돌고, 대기하는 차 안은 에어컨을 어찌나 빵빵하게 틀었는지 19도를 밑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깥 기온은 오르고 차 안은 기온이 떨어진다. 머리는 점점 더 띵해진다. 웬만한 남자보다 식성 좋은 나지만, 이날만은 좋아하는 짜장면도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느껴진다.

"현재 기온은 36도, 습도는 60%, 열사병 지수는 아직도 매우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오후 4시 중계가 시작될 무렵 현기증이 난다. 어찌됐든 무사히 방송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

팀장님께서 고생했다고 중복 전날이라 치킨을 사주셨다. 30분 만에 치킨 한 마리를 뚝딱 해치우고 집으로 향하는 길, 속이 울렁거린다. 뭔가 이상하다.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눈에 경련이 나기 시작한다. 끝내 구토 현상까지!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내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지냈다.

이틀 뒤인 월요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울을 보는 순간. '헉!' 인디언 마냥 시커멓게 탄 목과 어깨가 눈에 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관인 것은 샌들 모양대로 탄 두 발이다. 그 덕에 올해 여름, 맨발이지만 신발을 신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아직도 여름휴가 한번 다녀오지 못했지만, "우와~은실이 휴가 좋은 데로 갔다 왔나 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날씨가 좋든 나쁘든, 폭염이든 폭우든 폭설이든, 매일 아침 11시 중계를, 또 종일 중계를 나가는 생활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난 쭉~~ 할 것 같다.

HEAT WAVE

태풍 윤유라

퇴근길, 눈두덩이 바르르 떨린다. 태풍 '덴빈'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야근이 취소돼 정상 퇴근을 하는 중이었지만, 빨간 토끼 눈으로 YTN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확인한다. 밤 12시, 태풍 '덴빈'의 소멸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혹독한 신고식이 끝나는 달콤한 순간이었다. 기상캐스터들에게 태풍을 겪는 일은 일종의 신고식이다. 기상캐스터로서 갖춰야 할 수많은 요건을 모두 다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태풍의 진로, 이동 속도, 중심기압, 최대 순간풍속 등 이해하고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많고, 갑자기 방송 출연이 잡힐 때, 정보가 방송 직전 바뀔 때는, 순발력과 판단력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기상청에 태풍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끈기와 집요함도 필요하다.

이번 여름은 기상캐스터로서 맞는 두 번째 여름이었다. 신입이었던 작년에는 실수만 면하는게 목표였다면, 이번은 태풍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오롯이 함께 한 기분이다. 수시로 발효되는 기상 특보, 계속 바뀌는 태풍의 진로 등 새로운 정보가 발표될 때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은 빨라진다. YTN 기상캐스터는 방송뿐만 아니라 화면 아래로 나가는 날씨 스크롤, 앵커가 읽는 날씨 단신을 직접 쓰고, YTN과 YTN Weather, 라디오 등 여러 채널과 매체에서 방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방송이 생방송이라 긴장은 배가된다. 역대 다섯 번째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15호 태풍 '볼라벤'과, 타이완으로 향하다 갑자기 진로를 틀어 우리나라로 상륙한 14호 태풍 '덴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태풍이다. 큰 피해를 남기고 가 야속하기도 하지만, 나를 진정한 YTN 기상캐스터로 승격시켜준 고마운 태풍이기도 하다.

TYPHOON

폭우 한경진

"오늘 야근이다, 이번 순서 누구니?" 저 멀리서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야근을 피할 수 없다. "네, 저에요" 기상캐스터가 된 지 2년 정도 됐지만 야근을 하게 되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태풍이 온다면, 초비상사태가 돼 그래픽전문가까지 동원되지만 폭우 때문에 야근은 혼자서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우특보가 발표되면 단신 쓰고, 스크롤 챙기고, 방송 원고 쓰고, 그래픽도 만들고..... 정말 정신이 없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장을 고치거나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노란 우비를 입고, 생방송 대기를 하면서 중얼거린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지역은 바로..... ." 비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려면 방송 직전까지 원고를 수정하곤 한다. 또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방송할 수 없어 표정관리에도 신경을 쓴다. 이렇게 방송을 하나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4시가 지난다. 전쟁 같은 야근이 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피로가 몰려온다. 우리 기상팀에서 일복이 많기로 소문난 나, 유독 야근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타 방송사와 달리 새벽에도 시청자에게 신속하게 비 상황을 전했다는 생각에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HEAVY RAIN

박만희 YTN DMB 채널운영팀장

DMB는 현재 ‘단말기 5천만 대 시대’를 맞았다. 5천만 대의 단말기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중심에 DMB가 있다면 DMB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 고민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의 문제는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지난 8월 30일, 7년의 시간을 함께 경쟁(?)해 온 위성DMB의 서비스가 종료됐다.

2005년 5월 다채널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TU(티유미디어)는 지상파 재전송문제 논란, 유료가입자 문제 등 잇따르는 수많은 악재를 이겨 내지 못하고, 201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업계와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지상파DMB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언론들은 “천덕꾸러기 전락 지상파DMB 향배는?”, “지상파DMB, 화질 개선 승부수” 등 지상파DMB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언제부터 DMB 사업이 이처럼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위기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 위기는 스마트폰과 통신망의 고도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통신망의 단점도 존재하며, 방송망을 통한 DMB 서비스의 장점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부터 통신망의 단점을 살펴보고 그에 반해 지상파DMB가 지닌 장점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성DMB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비장의 무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YTN구성원 전체와 공유하고 싶다.

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는 비용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 13일 발표한 ‘2012년 1분기 소비자 콘텐츠 구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방송콘텐츠의 월평균 구입비용은 5,187원이었다. 방송콘텐츠 장르별로는 케이블TV가 3,06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IPTV가 914원, 나머지 장르는 30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료화를 선언한 pooq서비스가 한층 다양한 콘텐트와 서비스의 개선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실시간 방송이 1,900원, 다시보기 서비스는 3,900원, 통합서비스는 4,900원으로 그다지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다. 또한 CJ에서 시작한 tving서비스는 월 5천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지상파DMB는 무료보편 서비스라는 대의명분 아래 비디오채널 13개, 오디오채널 7개, 이와 더불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방통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지상파DMB는 작지만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DMB를 통해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이용한 VOD서비스 등 다양한 DATA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고화질 ‘하이브리드 DMB’도 조만간 완벽한 준비를 거쳐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DMB만의 기술을 이용한 소출력DMB(특정지역에 한정된 특수목적 DMB방송)서비스의 시험방송도 성공리에 마쳤다.

이처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해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드는 유익한 방송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매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감히 믿는다.

문제점으로 꼽아볼 만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이렇다 할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에서는 어느 매체 못지않게 중요한 매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전통적인 브로드캐스팅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모바일에서의 브로드캐스팅의 역할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MB는 현재 ‘단말기 5천만 대 시대’를 맞았다. 5천 만 대의 단말기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중심에 DMB가 있다면 DMB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 고민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아직 DMB는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같은 역경을 이겨낼 YTN DMB는 YTN이 보유한 멀티윈도우의 핵심에 당당히 설 것이고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창’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만큼 YTN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과학 콘텐츠의 길잡이가 되다

긴장감과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한 〈YTN SCIENCE〉 서포터즈 활동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기만 했던 선배님들과 동기들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함께하고 고민을 나누며, 이제야 나도 〈YTN SCIENCE〉의 소속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이 되다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8월 14일, 서포터즈 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체험형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일산 'KINTEX'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기관들과 대학교, 고등학교 동아리들이 축제에 참여하였고, 우리〈YTN SCIENCE〉도 과학콘텐츠 발전 및 홍보를 위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과학콘텐츠'라는 단어는 제게 있어 낯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제에 참가해 보니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생활에 밀접한 것이며,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 주는 뜻 깊은 축제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과학'과 '수학'이라는 과목은 지루하기 그지없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지만, 이러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 수학의 원리를 알아간다면 따분하고 지루한 수업의 내용이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마트 벨리 존'의 첫 번째에 자리 잡은 〈YTN SCIENCE〉 부스에서는 앵커체험과 과학 관련 OX 퀴즈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과학의 원리에 집중하여 준비하였다면, 〈YTN SCIENCE〉 에서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그대로 옮겨와, 방송콘텐츠 안의 과학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참신해 보였습니다.

'앵커체험'은 요즘 아나운서나 앵커가 되길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방송인을 꿈꾸며 이론적인 공부 외에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기회가 적어 안타까웠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 미리 체험해 보고 자신과의 적성에 맞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다는 한 초등학교 여학생은 빼어난 미모와 안정된 톤으로 원고를 읽어나가는 것이, 정말 미래의 뉴스 앵커를 보는 듯해,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뿐 만 아니라 이번 축제를 통해 앵커 체험에 참여했던 많은 꿈나무가 아나운서, 앵커로서의 꿈에 한발 짝 더 다가서는데 좋은 기회이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축제였기를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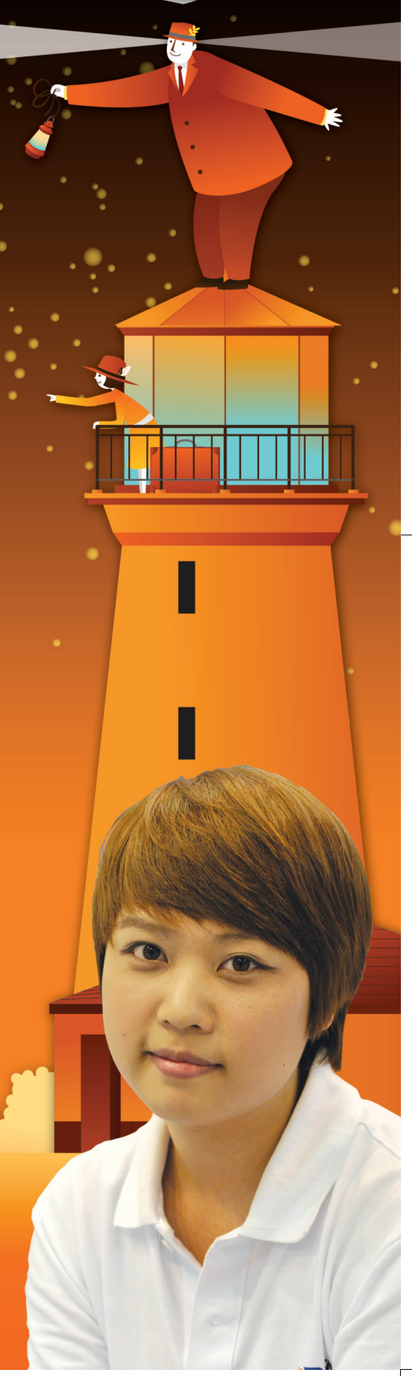
또, 'OX 퀴즈'는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면, 〈YTN SCIENCE〉 OX 퀴즈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퀴즈를 풀며 사은품까지 받아가니, 자녀의 체험학습을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부모들 역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 손자 손녀와 함께 오셔서 퀴즈를 풀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상품을 획득하신 할머니는 저희 서포터즈 들과 관계자분들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그에 저희 역시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큼 진한 감동을 하였습니다.

딱딱하게만 다가왔던 과학콘텐츠를 이번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축제의 매력 이였습니다. 또한 〈YTN SCIENCE〉역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방송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들어 준 것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학콘텐츠의 다양성뿐 아니라, 축제에 함께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따듯한 마음과 아이들의 밝은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진로 문제로 갑갑한 생각에 갇혀있던 제게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YTN SCIENCE〉 에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끝내고, 앞으로는 시청자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YTN SCIENCE 파이팅!

설다혜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4년 〈YTN SCIENCE 서포터즈〉



"경제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벌써 몇 년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많은 경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다시 살려줄 것을 기원했지만 바람과는 달리 경제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는 벌써 천조 원에 육박하고, 불법 사채는 이미 포화 상태, 골목상권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전문가 곽수종 박사가 YTN 생생경제의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들 꿈꾸는 직장 삼성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 나오셨어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고 프리랜서 선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떤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민간연구소였습니다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 주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하는 싱크탱크로서 기능이나 역할에 제가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면, 굳이 남아 있을 이유가없다고 판단했죠. 이렇게 하기엔, 제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준 가족의 이해와 격려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연구원이기도 했지만, 학교 교수이기도 했고, 미국에서 공무원도 하셨죠. 이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경험들 방송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프리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는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현장과 이론을 접목할 수 있다면, 나름 어려운 경제학의 이론도 일반론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사님께서 느끼는 방송, 특히 라디오 방송의 재미는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방송이니까요. 청취자 분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청취자분들의 '출구(exit) 혹은 의견(voice)'를 듣고 이해하는 노력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생경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박사님께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3시~5시라는 시간대가 황금시간대가 아니죠. 이 시간은 다른 방송국은 음악과 휴식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하지만 청취자 분들이 '경제를 이해하게 된다', '재미있다', '쉽게 설명해서 좋다', '듣다가 놓치기 싫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갔다.' 등의 소감을 보고 있을 때면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 지 느껴지고 자신을 다잡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즐거워요. 청취자분들이나 패널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생생경제를 하시면서 가장 힘주고 있는 부분, '내가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 생생경제 이것은 놓치지 마라!' 어떤 게 있을까요?

생생경제는 생생한 이슈와 정보를 드립니다. 둘째는 소탈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때로는 주관적이더라도 생각이 같을 수 있다고 느끼는 이슈들은 그냥 바로 말씀드리려 하죠. '향후 경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렵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빙 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곽수종의 생생경제〉는 청취자분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툭 터놓고 경제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죠.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김나연 YTN라디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PD

디지털 광고도 스마트

디지털 YTN 마케팅팀은 YTN의 웹사이트, 모바일, 테블릿 PC 등에 광고를 유치하고 관리한다. 급변하는 온라인광고 시장을 더욱 스마트하게 리드하기 위해 고민하고 혁신하는 팀이다.

스마트한 시대, 더 스마트하게

인터넷 ⇨ 모바일 ⇨ 테블릿 PC로의 빠른 뉴미디어 진화와 함께 온라인광고는 '양방향(Interactive)'과 '리치 미디어(Rich media)'로 급성장하고 있다. 디지털YTN 마케팅팀은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온라인 광고상품을 기획해 판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론사 최초 어플리케이션 200만 다운로드, 현재는 216만

언제나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YTN만의 강점이 어디서나 지니고 있는 모바일과 결합하면서 모바일 PV(page view) 상승세는 가속화되었다. 2011년 3월 언론사 최초 어플리케이션 100만 다운로드 시대를 개척하였으며, 급기야 2012년 5월 11일에는 200만을 넘어섰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달로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폭증하는 시대, 디지털YTN은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YTN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모바일 동영상광고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매체로 자리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85%가 "모바일 광고 클릭해봤다"

지난해는 인터넷 광고가 신문 광고시장을 제치고 매체 2위로 등극했고, 올해는 유선 인터넷 사용보다 모바일 광고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약 2,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색광고와 배너광고 위주인 모바일 광고 형태는 디바이스의 다양화와 고성능화로가 가속화되면서 동영상광고, 전면광고, 인터렉티브 광고 형태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

모바일광고는 21세기에 새로 도입된 디지털미디어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와 광고비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모바일 광고를 클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광고를 선호하는 이유 1, 2위는 '제품정보를 보기 위해'와 '광고가 재미있다'였고, 모바일 광고의 장점은 '클릭하면 바로 보는 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온라인광고 성장률은 18.3% 로 예상하지만 모바일광고는 무려 26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2015년엔 1조 원의 규모가 될 것이다.

디지털 YTN의 광고 지기들

디지털 YTN 마케팅팀은 김주환 부국장을 팀장으로 이용진 차장, 송현욱 대리, 송한나 대리 4인방이다.

대기업, 종합광고대행사를 맡아 팀장을 보좌하고 있는 이용진 차장은 YTN 온라인 매체에 대기업 광고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안하고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모바일 광고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광고 영업을 담당하는 송현욱 대리는 날로 변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과 광고효과를 끊임없이 분석해 광고주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광고기법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광고관리와 광고주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해 나가는 송한나 대리는 광고주들의 불편한 점이나, 디지털YTN 광고 관리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을 꼼꼼히 찾아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 광고주와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YTN 마케팅팀은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대응해 끊임없이 연구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서 가는 마케터로서 광고주의 마음을 열고 감동을 주는 마케팅 3.0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용진 차장 디지털YTN 마케팅팀

포토뉴스

'광주 ACE Fair' 참가

세계의 문화콘텐츠 흐름과 비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 ACE Fair'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9월 20일 막이 올랐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광주 ACE Fair'에는 세계 42개 나라에서 3백 41개 기업이 참가해 게임과 애니메이션, 3D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였다. YTN은 이번 전시회의 메인 스폰서 가운데 하나로 참여해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통틀어 24번으로 통일됐음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게시판

입사 김현아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8.20

전보 이기정 취재1부국장 선거방송TF팀장 겸임, 김장하 취재2부국장, 채문석 편집부국장, 강성웅 신사옥TF팀장, 마케팅국 광고운행팀장 정태걸, 김태현 뉴스기획팀장, 류제웅 사회2부장, 오인석 편집1부장, 김진호 편집2부장, 이동우 편집3부장, 박병한 편집4부장, 류재복 디지털뉴스팀장, 권오진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장, 김신영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장 뉴스제작팀장 겸임, 최재민 사회1부, 김원배 국제부, 박형일 차장 신사옥TF팀, 백상기 차장 미래전략팀, 김꽃임, 김동언, 민혜숙 광고운행팀, 이병식 차장, 박조은, 이선아 정치부, 이상순 차장, 황보선 차장, 이만수 경제부, 배성준 차장, 신윤정, 양일혁 사회1부, 홍석근 문화부, 이경재 차장대우 스포츠부, 김희준 차장대우, 정재훈 차장, 강태욱 차장대우, 서봉국 차장대우 국제부, 김정아 차장, 윤현숙, 한문규 편집2부, 염혜원, 오승엽 차장, 김혜은, 김기연, 이강진 편집3부, 방병삼 차장, 신웅진 차장, 조승희 차장, 박태환, 이광연 편집4부, 함형건 차장, 이승민 앵커팀, 최윤석 영상취재1부, 강영관 영상편집부, 이경아 차장대우 해외방송팀, 류근민 차장 기술기획팀, 김한철 차장 기술연구소 9.3 / 김원배 취재2부국장 뉴욕특파원 준비, 정재훈 차장 LA특파원 준비, 서봉국 차장대우 베이징특파원 준비 8.27.